

남원시 민선8기 공약 이행률 72%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비전... 올해 목표 60% 초과 달성

남원시가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72%를 기록하며 2024년도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민선 8기는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개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 차인 현재까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농생명바이오산업’,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전북 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

어학당 유치’ 등 23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형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등 18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다.

특히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는 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통해 서남대 폐교로 지역사회가 겪은 상실감을 해소하고 청년 및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이어, 올해 3월 舊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매입하고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등 2027년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원 활하게 진행 중이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남원을 드론레저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남원시 핵심 공약사업

으로,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서비스와 드론배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농생명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올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50여원을 확보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신성장 산업의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물 바이오산업은 올해 8월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본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이다.

또한 시는 12월 중 하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선8기 하반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은 “내년에는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변화하는 남원의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지난달 29일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박차

임실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 가져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는 주민 위원과 군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 용역사 등 사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보고회는 관계 용역사의 보고를 시작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고, 현재 임실군의 정책 방향과 함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발전적인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21년 임실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통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98억을 포함, 총 140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임실읍에 SOC 융·복합 거점 공간인 정주활력복합센터 구축과 함께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더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임실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하나 되어 농촌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중국 염성시와 교류 지속

염성-한국우호도시 협력교류회 참가

남원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차매도시인 중국 염성시에서 열린 염성-한국우호도시 협력교류회에 참가했다.

염성시는 강소성 중동부에 위치한 인구 800만 명의 경제·산업도시로, 가이자동차, 현대모비스, SK온 등 한국 대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남원시와는 1906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며 우호를 증진해 왔다.

이번 교류회에는 염성시의 한국 내 우호도시인 남원시,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 화성시, 제천시가 참가해 각 도시 홍보영상 상영, 소개 발표, 녹색 저탄소 혁신 발전 발의 등을 함께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남원시는 염성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K-컬처 예술공연 상호 교류 △K-남원 관광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우수 농·특산물,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수출 △화장품·항공산업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 추진 △주요 축제·행사 홍보 교류 △상호 체육행사 교류 등을 제안했으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양 도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순창군이 지난달 29일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인 ‘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장장 1년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용역 수임기관은 전북연구원(원장이남호)이 맡아 수행했다.

이번 용역 보고회에는 염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원장 등 간부 공무원 27명과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 6명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정책 논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성재 기획조정실장은 6개 분야에 걸친 53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다. 각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재원 조달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5명의 선임연구원들이 추가적인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앞으로도 장



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순창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생태관광 포럼 성황리 개최

남원시에서 지난 11월 29일~30일 이틀간 개최된 2024 생태관광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환경부에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강미희 박사가 ‘생태관광의 세계적 흐름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거버넌스 기반 글로벌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발표하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조영훈 사무관이 생태관광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우수 생태관광지역 사례로는 고창 운곡습지, 창녕 우포늪, 서귀포 하례리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지역 중에서는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의 국가생태관광지역 사례가 소개되었다.

환경부, 한국생태관광협회,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관광지역 관계기관 담당자 등 생태관광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태관광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생태관광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포럼 2일 차에는 국가생태관광지역 운봉을 행정마을과 삼산마을 탐방이 진행되어 남원의 생태관광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추진된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에서 호평을 받은 현지인 생태발상을 맞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지역 소식 통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제17기 졸업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제17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한 졸업생 31명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졸업식에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군의장, 동문화 임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그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올해 농업농촌혁신대학은 두 개의 전문 과정인 시설딸기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25회(113시간)와 농산물가공 전문가 양성과정 24회(101시간)를 운영했으며, 각 과정에서 75% 이상 출석률을 기록한 교육생 3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진흥청장상(시설딸기 과정 홍성준) 1명과 군수 표창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축사와 기념사진 촬영, 다과회로 행사를 풍성하게 마무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관촌면 행복누리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임실군이 지난달 29일 군수실에서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설계 용역사로 선정된 건축사, 임실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용역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 관촌면사무소는 1984년도에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관촌면 청사와 체육, 공공도서관 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생활 혁신 공간인 관촌면 행복누리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관촌면 행복누리원은 관촌면 관촌리 328-9번지 일원에 위치하게 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의 규모로 면청사,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